

금주의 법구-〈법구경〉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마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2월 2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90호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가 3월 2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제1차 환수기원법회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중단 및 부지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한전부지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조계종, 1차 환수기원법회... 무기한 정진 돌입

1970년 군사정권으로부터 강탈당한 옛 봉은사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불교계 환수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원명, 이하 환수위)는 3월 2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만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가 열린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강탈의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합성이 울려 퍼졌다. 이날 불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전부지의 봉은사 환수 △현대차가 신청한 부지개발계획에 대한 인·허가 절차 즉시 중단 △봉은사 경내지 불법 강탈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약을 이끌어 낸다. 계약 당사자인 봉은사 주지 날인이 들어가지 않은 불법계약을 진행한 것이었다. 당시 불교재단 처분 승인을 받은 문공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들며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윤태진 명의 대신 상공부가 계약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강행했다. 문제는 정작 정부가 상공부를 이전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1984년 한국전력만이 2만 5000여 평의 부지에 입주했고 정부는 나머지 7만 5000여 평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이후 국가기관이었던 한전마저 다시 민영기업에 이 2만 5000평을 매각하게 됐다.

1970년 정부 불법매입 후 민간매각 문제의 대상인 봉은사 옛 토지는 조선 시대에는 스님들의 과거시원인 승과가 열렸던 승과평이었다. 토지 규모는 10만 평에 달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장관과 서울시장은 상공부 청사 이전을 빌미로 이 10만평을 조계종으로부터 매입했다. 계약과정은 불법이었다. 조계종 환수위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인 윤진우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 윤태진 명의로 매입을 추진한다. 공시지가의 반액인 평당 5300원이었다. 봉은사 측은 격렬히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조계종 총무원을 겁박해 계

대규모 개발에 LTE급 건축허가 의혹 문제는 이 2만 5000평에 현대차가 2021년까지 105층 규모의 신사옥과 6개동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지을 예정이란 점이다. 전통사찰인 봉은사를 비롯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지만 서울시는 단 6개월 만에 사전 협상을 완료하고 올 6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환수위 공동위원장)은 “초고층 건물 건축 허가에 수년이 소요되지만 서울시는 단 6개월 만에 사전 협상을 완료했다”며 “이런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허가가 심각한 문제를

옛 봉은사 땅에 얽힌 수난사

- 선정릉 능찰 봉은사, 삼성동 일대 10만평 보유 (삼성동 명칭 유래)
- 1555년 4월 '승과' 재개, 한전부지 '승과평'으로 불림
- 1969년 12월 이후락 비서실장 참관 하에 조계종 기관장 매매 동의
- 1970년 1월 윤진우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10만평 매매 계약
- 1970년 9월 문공부 주변시세 미흡한 계약에 재검정 및 적정가 처분 요구
- 1970년 9월 정부, 매수인 윤진우에서 상공부로 변경
- 1984년 한국전력 2만 5000평에 입주
- 2007년 봉은사, 한전부지 환수 요청
- 2014년 9월 한전, 현대차에 부지 매각 결정
- 2016년 2월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 출범
- 2016년 3월 23일 제1차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 봉행

“군사정권, 불교계 압박해 강탈”
당시 불법계약·압력 내용 드러나
1만 불자 모여 정부·서울시 규탄
부지매각 후 서울시 광속 인허가
환수위 “환경영향 고려없는 기망”
향후 100만 서명, 2차 집회 계획

아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환수위 대표 스님들은 3월 10일과 14일, 법회가 열린 23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심지어 23일에는 서울시청에서 면담요청하는 스님들이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나오며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환수위 “2000만 불자들 분개할 것”
환수위는 3월 23일부터 서울시청 앞에 천막이 된 임시법당을 설치하고 서울시의 인허가 중단까지 무기한 기도정진에 돌입한 상태다. 임시법당 주지는 환수위 집행위원장 범민 스님이 맡으며 신도들과 스님들이 12시간 쉼 교대로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석 환수위 대변인은 “이날 법회에서 봉은사 토지를 되찾을 때까지 2차와 3차 기원법회를 열고 100만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로펌을 선임해 1970년대 진행된 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차와 3차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환수위 공동위원장 지현 스님은 “과거 정권의 이익을 위해 계획되고 서울시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불교를 살리는 일”이라며 “불교계를 기망한 이같은 행위에 대한 참회가 없을 시 1만을 넘어 2000만 불자들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덕현 기자

경전 이야기, 그림으로 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변상도 800여점 아카이브로 제공

아카이브 사업 연구 결과물
기록문화유산 관리·활용 모델

불교경전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그간 수집·연구한 변상도 이미지 856점을 최근 자체 아카이브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변상도(變相圖)는 불교 설화, 경전의 내용이나 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변(變)은 구전된 이야기를 문자나 그림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인데, 변상(變相)은 이 가운데서도 그림을 통해 불교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손꼽힌다. 변상은 넓은 의미에서 회화와 조각 등 부조까지의 미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경전의 내용을 도상으로 설명하는 경전 그림’으로 사경화(寫經畫)와 판경화(版經畫)를 가리킨다.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을 진행해온 불교학술원은, 이를 소장처 별로 정리한 ‘신성성문헌 검색시스템’으로 공개해왔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성성문헌에 담겨있는 변상도를 소장처와 문헌별로 분류함으로써 변상도만을 특화한 ‘변상도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불교학술원이 공개한 변상도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동화사, 용흥사 등 11개소의 소장처에서 ‘관무량수불경’ 등 156종 문헌에 나타난 856점의 변상도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각 문헌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자체 뷰어로 제공하는 ‘관무량수경’ 변상도 이미지.

흩어져 있던 변상도를 모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해 검색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수행한 결과다. 불교학술원은 각 문헌의 변상도만을 볼 수 있는 변상도 뷰어를 개발하고, 해당 문헌에 수록된 변상도를 한 면 보기, 두 면 보기로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불교학술원은 공개된 변상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벡터화 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픽셀로 표현된 이미지를 벡터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벡터화가 마무리된 이미지는 확대해도 해상도에 관계없이 형태와 색을 유지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벡터화된 변상도는 색을 입혀서 보다 사실적인 전달을 위한 작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변상도 이미지를 성격별로 분류해 각각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불교학술원은 “앞으로도 조사 및 촬영된 문헌에 포함된 변상도만 따로 모아, 이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대성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필요한 원천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축 맞아 저소득 아동 캠페인 실시

아름다운 동행, 5월 31일까지 ARS·계좌 후원

불교계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BTN불교TV(사장 구분일)와 함께 봉축 모금 캠페인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아름다운동행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내외 빈곤 아동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은 3월 14일~5월 31일 진행된다. 전화 한 통화로 3,000원이 기부되는

ARS 전화(060-700-0011) 또는 계좌(023501-04-234755, 예금주 아름다운동행)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들의 장학금,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지원, 모자 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소원 들어주기를 비롯해 해외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영양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02)737-9595

박익문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 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정품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 단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